

2018

제19호

발간년월 2019년 1월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감 수 하동우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행인 양창호

홈페이지 www.kmi.re.kr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한-베트남 수산식품·가공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정명화 국제수산업연구실 실장

(jmh@kmi.re.kr/051-797-4571)

안지은 국제수산업연구실 연구원

(an2412@kmi.re.kr/051-797-4583)

홍혜수 국제수산업연구실 연구원

(doubleh@kmi.re.kr/051-797-4903)

오서연 국제수산업연구실 연구원

(seoyeon_oh@kmi.re.kr/051-797-4557)

2017년 11월 정부의 신남방정책 선언 이후, 한-베트남간 상생형 산업협력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수산분야에 있어서는 베트남 정부의 수산식품·가공업 부문에 대한 협력 강화 요청이 있었던 만큼 동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협력 수요 발굴 및 협력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베트남의 수산업 개발 정책에 기초한 수산 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수산분야 협력사업 추진 방향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베트남 농림수산업은 GDP의 16.3%, 경제활동인구의 49.5%를 차지하며 베트남 주요산업에 위치해 있다. 또한 연평균 7.4%대 높은 성장률과 전체의 85%에 달하는 수출중심의 수산물 교역 구조로 무역수지 흑자에 기여하는 등 베트남 경제의 주요 축으로 자리하고 있다. 베트남 수산업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유통·가공 부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통주체 간 협력 부족에 따른 생산-유통 과정의 비효율성과 수산식품 가공업체 영세성으로 인한 가공기술개발 및 위생관리, 비관세 장벽 대응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수산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국의 수산업을 주요 수출 대표 산업(leading commodity)으로 발전시키고자 ‘2030 마스터 플랜(2013)’과 ‘실행계획(2014)’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 따르면 베트남의 어업생산량을 2030년까지 900만 톤으로 증산하고, 양식어업 비중 70.0%로 확대, 수산물 수출액 200억 달러 달성, 어업 숙련 노동자 비중 80.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동 계획은 베트남의 자체적인 역량 부족 등으로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개발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르웨이와 호주 등 주요 수산강국은 베트남 수산분야 진출에 있어 개발협력 사업을 시작으로

경제협력까지 확대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의 경우, 베트남과의 양자협약을 통해 양식업 중심의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시에 해외진출 전담기관인 ‘이노베이션 노르웨이’를 통해 기업 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호주는 베트남과 전략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다년간의 개발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크게 제고하였다. 이와 동시에 ‘호주무역대표부’를 통해 기업의 무역·투자 촉진 등 실질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수산물 무역구조는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베트남 수산물 수입편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양국 간 무역균형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경제·개발협력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수산분야의 투자·협력 규모는 각각 전체의 1% 수준에 그쳤다. 특히 한-베트남 수산분야 개발협력 현황을 살펴보면 일회성·단발성 사업이 대부분으로, 향후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수산물 수출업체와 관련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남방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 낮은 반면 대베트남 개발협력의 필요성과 영향, 향후 발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협력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는 ‘수산가공 및 물류·유통’으로 나타났으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는 ‘투자정보’ 및 ‘민관차원 협력사업 확대’ 등 베트남 현지 기업활동에 대한 실질적 지원정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수산분야 개발협력 사업으로는 수산가공 분야와 양식어업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베트남 수산가공산업이 가지는 취약점과 우리나라 수산업에 있어서의 강점, 그리고 베트남 정부의 수산정책 방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결과이다. 효과적인 개발협력 사업 추진과 이를 통한 경제협력 기반 마련 및 대베트남 진출·투자 확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후속사업 발굴과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개발협력 사업 고도화가 필요하다.

‘대 베트남 개발협력 사업 고도화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 수산가공산업의 원료 수급 안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1단계 거버넌스 구축, 2단계 IUU-Free 수산가공산업 기반조성(민간참여형), 3단계 수산가공 첨단기술 활용기반 마련, 4단계 민간협력 단계로 구성하였다. 이때, 기존 개발협력사업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창의적·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수산 스타트업 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대 베트남 수산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혁신 개발사업(FITS: Fishery Innovation Technology Support)’을 발굴한다. 또한 향후 우리 수산기업의 대베트남 진출 본격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해외어업 개발을 위한 투자 인프라 구축 사업’을 시행하여 수산 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베트남 정부와 우리 수산업계의 개발협력 수요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 베트남 수산분야 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 향후 한-베트남 수산분야 협력강화와 민간 투자·진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기존 미국, 중국, 일본에 집중되었던 우리나라의 수산 교역·투자를 베트남과 아세안 시장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 수산분야 현황 파악을 통한 개발협력 방안 모색 필요

■ 베트남 수산업, 성장세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높은 기여

- 2016년 기준, 베트남 농림수산업은 국내총생산의 16.3%, 15세 이상 노동인구의 49.5%를 차지하며 베트남 경제의 주요 축으로 자리함
 - 베트남 수산업(잡는어업+양식업) 생산량은 2010년 514만 톤에서 2016년 687만 톤으로 연평균 4.9% 성장함
 - 2016년 기준 잡는어업은 323만 톤으로 전체 수산업 생산량의 47.0%를 차지하며, 양식업은 365만 톤으로 수산업 생산량의 53.0%를 차지하며 잡는 어업 생산량을 상회함
- 2016년 수산물 교역규모는 86억 달러로 2010년 이후 연평균 7.4% 증가하였으며, 교역의 85%가 '수출'이 차지하고 있어 수출중심의 교역 구조를 보임
 - 수산물 수출액은 2010년 51억 달러에서 2016년 73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수산물 수입액은 2010년 5억 달러에서 2016년 13억 달러로 연평균 17.1% 증가함
 -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1차 가공 수산물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원재료 수급을 위한 원물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주요 수산물 교역국으로 2015년 기준 수산물 수출 대상국 중 3위, 수입 대상국 중 2위를 차지함

■ 베트남 수산유통과 가공 전반에서 다양한 취약점을 내포

- 베트남 주요 생식품목은 유통과정에서 다양한 개선사항이 나타남
 - 특히 수산물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의 유통과정에서 유통주체간 연계부족이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남
 - 새우는 어병 관리 기술 부족, 안정적 생산량 확보의 어려움, 공급망의 수직계열화 부족, 관계자 간 협력부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본 투자의 부족이 취약점으로 대두됨
 - 참치는 수산자원에 관한 과학적 정보 부족, 생산이력 추적 가능성의 부재, 낙후된 보관기술, 수출 시장의 높은 식품안전 기준, 관계자 간 협력부족,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보존조치 부족이 문제점으로 나타남
- 주요 선진국의 식품 위생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베트남 수산물 수출 규모를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대응이 요구됨

- 수산물 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영세한 가내수공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높아지는 수산물 수입국의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어려움

■ 베트남 정부, 2030년까지 수산업 발전전략 수립

-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자국 수산업 현대화를 통한 국가 경제 발전 및 해양강국 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함
 - 수산업 현대화 및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수산업 생산량을 900만 톤까지 증산하며, 양식업의 비중을 70%까지 확대하고자 함
 - 베트남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해 수산물 수출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함
 - 어촌 생활수준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수산업 종사자 중 훈련된 종사자의 비율을 80%까지 확대시키고자 함
- 수산업 현황 및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베트남 수산업 개발 수요를 도출한 결과, 수산물 가공기술 및 위생개선과 수산업 이해관계자 협력관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됨
 - 베트남 정부는 이해관계자 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2030 전략을 통해 어업인 협동조합 구성 등을 논의함
 - 향후 베트남과의 장기적인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베트남 수산업 현황에 관한 고민이 필요함

국내 수산식품·가공분야, 對베트남 개발협력 수요 타당성 높게 평가

■ 한-베트남 수산물 교역 지속 증가, 양국 간 무역균형 유지 노력 필요

- 양국 간 수산물 무역규모는 지속 증가세에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매년 심화되고 있음
 - 2017년 기준, 한-베트남 수산물 교역액은 8.6억 달러로 최근 5년간 연평균 9.0%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교역량은 총 20만 톤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4.6%의 증가세를 보임
 -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수산물 수출대비 수입비중이 전체의 약 88.0%에 달해 심각한 수입편중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 2017년 기준 대베트남 수출액 1.1억 달러, 수입액 7.5억 달러로 나타남

- 양국 주요 수산물 교역품목은 참치와 새우 등 특정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임
- 2017년 기준 주요 수출품목은 참치로 전체의 30.2%를 차지하였으며,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새우 살(25.8%)과 새우(21.1%)가 전체의 약 5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 외국인 투자 지속 확대, 수산부문 투자 실적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

- 베트남의 투자환경 및 기업경영 여건에 대한 국제사회 긍정적 평가 영향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FDI) 규모는 지속 증가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베트남 FDI 규모는 총 371억 달러, 2,741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0.0%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음
- World Bank의 2018년 기업경영여건 순위도 2014년 99위에서 2018년 68위로 대폭 상승하였음
-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투자규모도 2017년 기준 19.5억 달러, 전체 4.5%로 지속 증가세 있음
- 베트남 FDI에서 가장 높은 투자분야는 제조업(58.4%)으로 나타났으며, 수산부문은 전체의 1.0% 미만에 그침
- 2017년 누적 기준, 베트남의 농림수산물 FDI 규모는 전체의 1.1%인 35.2억 달러에 그침
-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투자에서도 어업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업 외 수산분야* 투자규모도 약 0.9%에 불과한 1,732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 어업 외 수산분야: 제조업 내 '수산물 냉동품 제조업', '배합사료 제조업', '어망 및 끈 가공품 제조업' 및 도 소매업 내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 한-베트남 개발협력, 일회성·단발성 사업 추진으로 향후 개선 필요

- 우리나라는 일본, 프랑스 등과 함께 베트남 주요 공여국으로, 2006년 이후 대베트남 ODA 규모는 증가한 반면 비중은 크게 감소함
-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베트남 ODA 규모는 1.9억 달러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6.5% 증가한 반면, ODA 비중은 6.8%로 2007년 22.3% 대비 크게 감소함
- 어업분야 ODA 규모는 전체 어업분야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사업도 단기초청 연수 및 기술교육 등 단발성 사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베트남 어업분야 ODA 규모는 2016년 기준 7만 달러 규모로 2007년 20.0%에서 최근 1.0%대로 감소함

■ 국내 수산식품·가공 업계, ‘신남방정책’을 통한 對베트남 개발협력 필요성에 크게 공감

- 국내 수산식품·가공 수출업계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반면, 대베트남 협력수요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수산물 수출입 업체의 경우 ‘신남방정책’ 및 베트남 정부의 수산부문 협력 수요에 대한 인지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신남방정책’을 통한 베트남 개발협력의 필요성과 영향, 향후 발전 가능성은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베트남 개발협력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는 ‘수산가공 및 물류·유통’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는 현지 기업활동에 대한 실질적 지원정책인 것으로 분석됨
 - 대베트남 개발협력 필요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수산가공인프라’, 가장 유망한 분야는 ‘수산물류 및 유통’으로 나타남
 - 대베트남 수산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베트남 투자정보’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차원의 협력사업 확대’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 수산강국, 對베트남 진출 위해 개발협력 사업을 경제협력 촉진제로 활용

■ 노르웨이, 개발협력을 기업의 베트남 진출의 시험대로 활용

- 노르웨이는 노르웨이개발청(NORAD)을 통해 수산분야에 특화된 사업인 ‘개발을 위한 수산업(FfD)’을 적극 추진함
 - 수교 이후 개발협력에 관한 양자협정을 맺고 대베트남 개발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대베트남 개발협력 사업은 수산개발, 수산정책, 수산연구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잠재력이 높은 베트남 양식부문에 사업이 집중됨
 - 주로 어류양식장과 관련된, 종묘, 사료, 질병관리와 같은 양식 기반구축에 관한 타당성 조사가 실시됨. 베트남 진출을 계획하고 있거나, 기 진출한 노르웨이 기업이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여 프로젝트의 타당성 및 기술의 현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함
 - 노르웨이 기업의 실질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해외진출 전담기관 ‘이노베이션 노르웨이’는 베트남의 수산업을 투자 유망분야로 선정함

- 즉, 노르웨이는 개발협력과 이노베이션 노르웨이를 통해 기업이 사전에 베트남 시장 특성을 파악하여 좀 더 쉽게 접근하도록 만들어 투자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음

■ 호주, 경제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추진

- 호주는 베트남과 전략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개발 및 경제 협력을 촉진함
 - 대베트남 수산부문 개발협력 사업은 호주국제농업연구센터(ACIAR)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주로 베트남 양식어업과 관련된 연구, 정책, 개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대베트남 ODA 사업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가능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계속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의 연속성 및 효과성을 강화하여 경제협력 기반 구축에 활용함
 - 실질적인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호주무역대표부(Austrade)는 해외 유망투자 분야를 발굴하고, 해외 진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호주는 베트남을 전략 국가로 보고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등을 통해 개발협력 및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신남방정책 활용, 베트남 수산분야 개발협력 사업 고도화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 신남방정책 활용, 베트남 진출은 수산분야 수출 시장 다양화와 기업 진출 확대가 목표

- 대베트남 수산기업 진출은 합작 투자에서 현지 생산 공장 설립으로 발전하는 방안이 이상적이지만 수산기업의 영세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
 - 우선 베트남과 교역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애로 사항 해결을 중점적으로 추진함
 - 이후 베트남 수산분야 개발협력 사업(ODA)을 실시하면서 민간 기업이 참여토록 하고, 동시에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산 스타트업기업, 청년 기업의 창업 지원을 활성화시킴
-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대베트남 수산분야 개발협력 사업 추진이 필요함
 - 개발협력 사업으로는 ‘수산가공 인프라 구축’과 ‘양식어업’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됨
 - 수산가공 분야의 협력 사업(안)으로는 ‘수산가공기술 역량 강화(안)’, ‘베트남 수산가공시설 및 인프라 구축 사업(안)’, ‘베트남 수산가공산업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안)’임

- 양식어업 분야 협력 사업(안)으로는 ‘베트남 천해양식 품목 발굴을 위한 타당성 조사’, ‘양식어업의 어병 통제를 위한 수산교육 프로그램 개발’, ‘양식수산물 유통·가공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제안함

■ 신남방정책 뒷받침할 개발협력 사업, 기존과는 다른 차별화 접근 필요

- 개발협력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지속적으로 후속 사업을 개발함으로써 사업 내용을 심화시켜야 함
- 베트남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의 목표를 우리나라 수산기업의 대베트남 진출 지원 도모로 설정함
 - 개발협력 사업을 기초로 하여 국내 기업이 베트남 진출을 활성화하고, 이를 계기로 베트남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상호 윈윈전략 구사함

■ 對베트남 수산분야 민간 참여 통한 개발협력 사업의 고도화 추진

- ‘수산가공’은 베트남 수산가공산업의 원료 공급 안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1단계 거버넌스 구축, 2단계 IUU-Free 수산가공산업 기반조성(민간참여형), 3단계 수산가공 첨단기술 활용 기반 마련, 4단계 민간 협력 단계로 구성함
- 2단계는 베트남의 IUU 어업 근절에 대한 높은 협력 수요와 우리나라의 높은 기술적 우위를 활용해 민간 진출이 가장 유력한 분야임
 - 우리나라의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구축, 빅데이터 기반 IUU어업-Free 수산물을 확인하고 해당 생산된 수산물을 수산 가공공장과 연계하는 방안을 시범 사업화함
- 3단계는 수산가공산업의 ICT 기반 이력추적제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함
 - 이력추적제는 베트남의 주요 생산어업인 양식어업, 내수면어업, 해면어업으로 점진적으로 적용함
 - 대상 품목은 5개 어종(양식어업의 흰다리새우와 타이거새우, 내수면어업의 메기, 해면어업의 참치와 꽃게)을 우선 고려하여 타당성 조사를 연차별로 실시함

■ 수산 스타트업 기업 위한 혁신 개발협력 사업(FITS) 발굴

- ‘대베트남 수산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혁신 개발협력 사업(FITS: Fishery Innovation Technology Support)’은 기존 개발협력 사업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창의적이고 혁신적 방법을 모색하고, 수산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함임
 - 베트남의 수산가공산업과 양식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양식생물의 어병 관리, 원료 확보를 위한 수산자원관리에 있어 기존 해결 방법이 아닌 창의적이고 혁신적 방법 모색 필요

- 혁신개발사업이 기존 EDCF 또는 ODA 사업보다 적은 규모로 단계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장점 지님
- 해양수산부가 주관 부서가 되고 KMI의 ‘해양수산 ODA 센터(안)’가 추진 주체가 됨
- 이미 KOICA에서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Creative Technology Solution)을 개발협력 사업에 적용하고 있으나 중점 사업분야가 보건, 교육, IT, 환경 등임
- FITS의 주요 사업으로는 기술개발사업, 현지 적용사업, 실용화 사업임
- 실용화 사업은 현지 기업 또는 현지 파트너와의 공동 창업, 현지인의 고용 등을 통해 사업 기간 중 현지에 해당 제품이나 기술이 적용되어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 수산 기업의 ‘해외어업 개발을 위한 투자 인프라 구축 사업’ 마련

- ‘해외어업 개발을 위한 투자 인프라 구축 사업’의 목표는 베트남과 교역 또는 향후 진출을 계획하는 수산 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임
- 사업의 목적은 투자 대상국에 대한 정보 제공, 컨설팅, 현지 실무교육 등 투자 인프라를 구축하여 해외어업 진출을 활성화하고 해외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사업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됨
- 첫째, 해외어업개발 투자정보 제공을 위한 민관 공동 어업투자환경조사 실시
- 둘째, 진출 사업의 원활한 정착과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 셋째, 해외 진출 기업의 안정적 정착 지원 사업임

KMI 현안연구 요약보고서

구분	제목	발행일
제1호	미얀마 수산 성장 엔진, 국립수산대학 설립 ODA 사업으로 밝혀야	2018.10.12.
제2호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 구상 연구	2018.10.12.
제3호	청년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물류인력 양성 서둘러야	2018.10.13.
제4호	연안여객 해상교통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방안 연구	2018.10.18.
제5호	자율운항선박으로 스마트 디지털 해상물류체계 실현	2018.10.18.
제6호	해조류 국제양식규범확산에 따른 국내 김산업 수용태세 분석 -ASC 인증제를 중심으로-	2018.10.25.
제7호	표준계약서 및 장기 계약 제도 도입으로 컨테이너 화물 해상 운송 계약 관행 개선	2018.10.25.
제8호	선박관리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2018.11.01.
제9호	어린물고기 남획실태 및 보호정책 연구	2018.11.01.
제10호	연안토지매입 동향과 도입 가능성 검토	2018.11.08.
제11호	강릉선 KTX 개통에 따른 해양관광 수용태세 개선방안	2018.11.08.
제12호	시민 참여형 연안·해양 정보 생산·활용 방안	2018.11.15.
제13호	부산항 배후지 부가가치활동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연구	2018.11.15.
제14호	해양바이오 산업화 촉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방향 연구	2018.11.22.
제15호	항만물류 부문의 남북 협력사업 추진 전략	2018.11.22.
제16호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업 고용영향 분석	2018.11.29.
제17호	한국 제조기업의 SCM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18.11.29.

URL: <https://www.kmi.re.kr/>